



푸틴 집권 4기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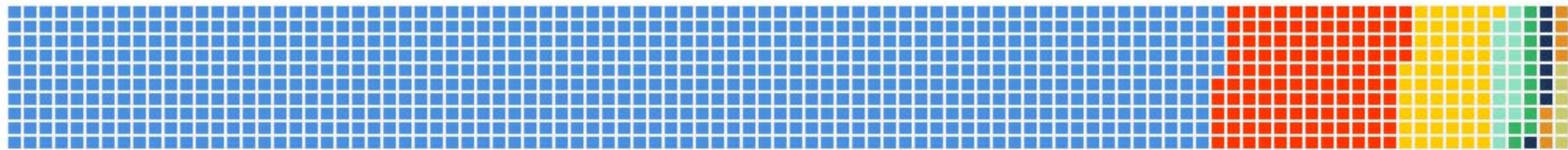
2018년 7월 4일

장세호(전략연)

I. 3.18 대선 결과

후 보 자				주요 경력
1	세르게이 바부린	59세	전인민동맹	러시아 인민 대의원(1990~1993) 국가두마 의원(1993~2000, 2003~2007) '전인민동맹'당 대표(2011~)
2	파벨 그루디닌	57세	러시아연방공산당	모스크바 주 두마 의원(1997~2011) 비드노예 시의회 의장(2017~)
3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71세	러시아자유민주당	국가두마 의원(1993~) '러시아자유민주당' 대표(1992~)
4	블라디미르 푸틴	65세	무소속	러시아연방 대통령(2000~2008, 2012~) 러시아연방 총리(1999~2000, 2008~2012) '통합러시아'당 대표(2008~2012) 연방보안국(FSB) 국장(1998~1999)
5	크세니야 솅차크	36세	시민 이니셔티브	러시아야권조정위원회 위원(2012~2013) '시민 이니셔티브'당 정치위원회 위원(2017~)
6	막심 수라이킨	39세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당 중앙위원회 위원장(2012~)
7	보리스 티토프	57세	성장당	'성장당' 대표(2016~) 기업가 권익 보호 대통령 전권대표(2012~)
8	그리고리 야블린스키	65세	야블로코	'야블로코'당 대표(1993~2008) 국가두마 의원(1993~2003)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 의원(2011~2016)

투표율: 67.54%



정사각형 하나에 0.1% 득표



블라디미르 푸틴

76,69%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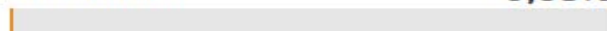
그리고리 야블린스키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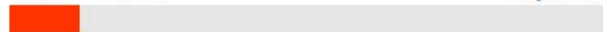
막심 수라이킨

0,68%



파벨 그루디닌

11,77%



크세니야 솅차크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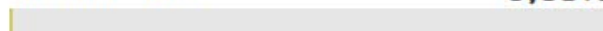
보리스 티토프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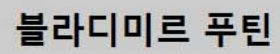


세르게이 바부린

0,65%



푸틴은 러시아 전체 유권자 수의 과반을 초과한 56,430,712표 득표



크렘린의 대선 목표

1.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2. 2012년 대선 수준의 투표율 유지

3. 압도적 득표율로 1차 투표 당선



대선의 정당성 확보
푸틴 4기 정부의 안정적 성립



지정학 이슈의 대선전 지배

△ 대통령 선거일을 3.11에서 3.18로 변경

△ 선본 대변인 안드레이 콘드라쇼프의 다큐멘터리 '푸틴' 공개

△ 선거 며칠 전 푸틴의 크림 반도 방문

△ 3.1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의 군 현대화 현황과 국가안보 구상의 시연

△ 스크리팔 암살 시도 사건과 영국과의 외교 갈등 비화



러시아가 외부의 적들(서방)에 의해 겹겹이
포위돼 주권을 위협 받고 있다는 이른바
'포위된 요새' 개념의 토대 위에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소위 '푸틴 일병 구하기'
논리가 주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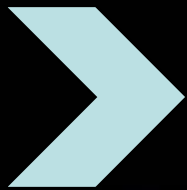


II. 푸틴 4기 정부의 주요 대내외 정책 방향

푸틴 집권 4기의 핵심 과제:

△ 2000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자신이 제시한 국가노선(푸틴주의)의 완결

△ 현 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후계자의 선정과 안정적 권력이양



집권 1~3기의 국가노선과 정책방향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전략



푸틴 집권 4기 국정 운영의 총론

△ 2018.03.01. 대의회 연례 국정연설

△ 대통령 행정명령 “2024년까지 러시아연방 발전의 국가 목표와 전략적 과제에 대하여”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

В целях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рорывного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елич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жизни граждан,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их проживания, а также условий и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и раскрытия таланта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постановляю:

1.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ижение следующ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ей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

- а) обеспечение устойчивого естественного роста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б) повышение ожидаемо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до 78 лет (к 2030 году - до 80 лет);
- в) обеспечение устойчивого роста реальных доходов граждан, а также роста уровня пенс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ыше уровня инфляции;
- г) снижение в два раза уровня бед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д)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не менее 5 млн. семей ежегодно;
- е) ускорени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организаций,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инновации, до 50 процентов от их общего числ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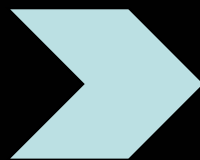
2 100039 06347 7

1. 국내정치 전망

1) 안정적 경제·사회 정책 추진과 국민복지 증진에 총력 다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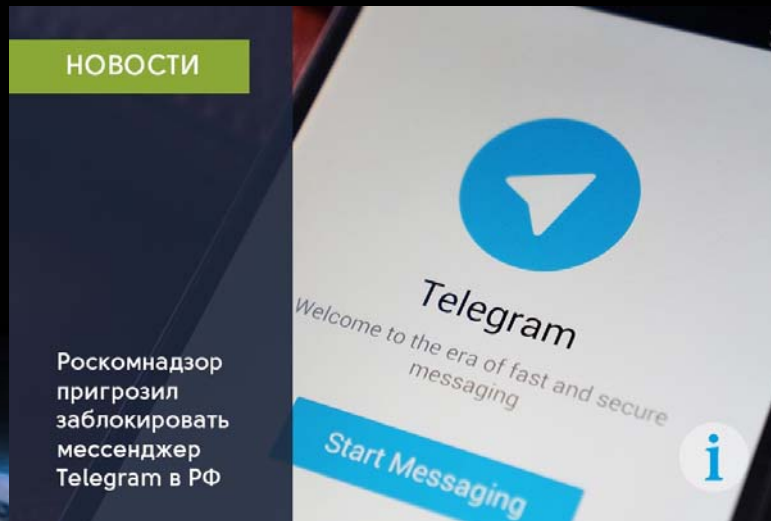
- △ 국제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 △ 향후 6년 동안 비에너지 수출 부문의 2배 증가
- △ 2025년까지 전체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율 40% 차지
- △ 노동생산성 매년 최소 5% 이상 상승

“향후 6년 동안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5배 늘리는 한편,
러시아를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끌어 올리겠다.”



2) 정치개혁: '수사'와 '현실' 사이의 깊은 괴리

푸틴, 3.1 국정연설에서 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자유를 확대하고
민주적 제도, 지방자치, 시민사회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에 열린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



3) 푸틴 4기 정부 인적 구성: 기존 틀 유지 속 부분적 쇄신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митрий
Анатольевич
Медведев

Заместите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Антон Германович
Силуано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ппара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нстантин
Анатольевич Чуйченко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аксим Алексеевич
Акимо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рий Иванович
Борисо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атьяна Алексеевна
Голиков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льга Юрьевна Голодец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Васильевич
Гордее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митрий Николаевич
Козак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италий Леонтьевич
Мутко

Федеральные министры



Министр просвещения

Ольга Юрьевна
Васильева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Дитрих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Евгений Николаевич
Зиничев



Министр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Дмитрий Николаевич
Кобылкин



Министр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Козлов



Министр спорта

Павел Анатольевич
Колобков



Министр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Владими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Колокольцев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Александр
Владимирович
Коновалов



Министр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Котюков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ргей Викторович
Лавров



Министр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Денис Валентинович
Мантуров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Владимир
Ростиславович
Мединский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Александр
Валентинович Новак



Министр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Константин Юрьевич
Носков



Минист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Максим Станиславович
Орешкин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Дмитрий Николаевич
Патрушев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ероника Игоревна
Скворцова



Министр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Максим Анатольевич
Топилин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Сергей Викторович
Чеботарёв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Сергей Кужугетович
Шойгу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Якушев

	직 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나이)	유/신임
	총리	<u>드미트리 메드베데프</u>	남	1965.10.14.(52세)	
1	제1부총리	안톤 실루아노프	남	1963.4.12.(55세)	신임 * 재무 장관 겸임
2	부총리 (통신, 건설, 디지털 경제)	막심 아키모프	남	1970.3.1.(48세)	신임
3	부총리 (군수산업)	유리 보리소프	남	1956.12.31.(61세)	신임
4	부총리 (사회정책, 보건)	타티야나 골리코바	여	1966.2.9.(52세)	신임
5	부총리 (문화, 체육)	올가 골로데츠	여	1962.6.1.(55세)	유임(관할 변경)
6	부총리 (농업)	<u>알렉세이 고르데예프</u>	남	1955.2.28.(63세)	신임
7	부총리 (산업, 에너지)	<u>드미트리 코작</u>	남	1958.11.7.(59세)	유임(관할 변경)
8	부총리 (건설, 지역정책)	<u>비탈리 무트코</u>	남	1958.12.8.(59세)	유임(관할 변경)
9	부총리 (극동)	유리 트루트네프	남	1956.3.1.(62세)	유임
10	부총리 (내각 사무국)	<u>콘스탄틴 추이첸코</u>	남	1965.7.12.(52세)	신임

※ 나이는 2018년 5월 21일 기준



	부 서	성 명	성별	생년월일(나이)*	유/신임
1	교양부	올가 바실리에바	여	1960.1.13.(58세)	유임(부서 분할)
2	교통부	예브게니 디트리흐	남	1973.10.8.(45세)	신임
3	비상사태부	예브게니 지니체프	남	1966.8.18.(51세)	신임
4	자원환경부	드미트리 코빌린	남	1971.7.7.(46세))	신임
5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남	1981.1.2.(37세)	신임
6	체육부	파벨 콜로브코프	남	1969.10.22.(48세)	신임
7	내무부	블라디미르 콜로콜리체프	남	1961.5.11.(57세)	유임
8	법무부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남	1968.6.9.(49세)	유임
9	과학고등교육부	미하일 코투코프	남	1976.12.21.(41세)	신임(부서 분할)
10	외무부	세르게이 라브로프	남	1950.3.21.(68세)	유임
11	산업통상부	데니스 만투로프	남	1969.2.23.(49세)	유임
12	문화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남	1970.7.18.(47세)	유임
13	에너지부	알렉산드르 노박	남	1971.8.23.(46세)	유임
14	디지털경제통신대중소통부	콘스탄틴 노스코프	남	1978.10.26.(39세)	신임
15	경제개발부	막심 오레시킨	남	1982.7.21.(35세)	유임
16	농업부	드미트리 파트루세프	남	1977.10.13.(40세)	신임
17	보건부	베로니카 스크보르초바	여	1960.11.1.(57세)	유임
18	노동사회보장부	막심 토피린	남	1967.4.19.(51세)	유임
19	북카프카스부	세르게이 체보타료프	남	1969.10.14.(49세)	신임
20	국방부	세르게이 쇼이구	남	1955.5.21.(63세)	유임
21	건설주택부	블라디미르 야쿠세프	남	1968.6.14.(49세)	신임
22	재무부	안톤 실로야노프	남	1963.4.12.(55세)	유임

주요 특징

○ 메드베데프의 총리 재임명

○ 내각 내 조직적 변화: △ 열린정부부 제거, △ 교육과학부의 교양부와 과학고등교육부로의 분할

○ 10명의 부총리와 21명의 장관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새로운 인물로 교체

※ 부서 수는 22개이지만 실루아노프의 재무장관 겸직으로 장관 수는 21명

○ 대체로 △ 주요 권력엘리트 파벌과 기업들의 영향력 강화, △ 차세대 테크노크라트의 진출 확대, △ 인적 자원의 결핍을 보여주는 회전문 인사, △ 타협적·과도기적 인적 구성의 특징을 나타냄



4) 지역에 대한 통제력 강화 속 극동·시베리아 개발 속도 낼 것

△ 장관 차출 지역 주지사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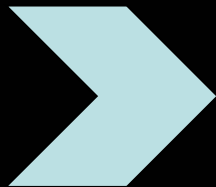
- 아무르 주, 튜멘 주, 야말-네네츠 자치구

△ 문제 지역 주지사 교체

- 케메로보 주지사 사임

- 야쿠티야 공화국, 마간단 주 수반 해임

△ 예카테린부르크 시장 직선제 폐지



△ 주지사의 기술관료화, 탈정치화를 초래

△ 러시아 연방제(주의)의 침식

△ 주지사 직선제(선거의 제도적 의미) 퇴색

△ 신동방정책으로 대변되는 극동·시베리아 정책은
푸틴 4기에도 비중 있게 추진될 것

△ 조직과 인적 준비의 측면에 일부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동력 마련

5) 푸틴은 집권 후반기에 후계 문제 본격화할 것

푸틴은 집권 후반기 후계 문제를 본격화할 것이며,
집권 4기 전반기의 성취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신의 지지도를
최대한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권력 이양을 도모할 것

현재 △ 헌법 개정과 종신집권, △ 수렴청정, △ 완전한 권력이양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집권 4기 초인
현 시점에서 이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2. 푸틴 4기 대외관계 전망

1) 대 미국/서방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

러시아는 미국/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핵심 이익을 양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 양보를 통한 타협'보다는 '힘의 균형'을 추구하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에 주력할 것

트럼프-푸틴 간의 개인적 친화성이 미래 관계 전개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제재의 제도화'를 넘어 양국 관계의 대전환을 이루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것



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소외 불식과 영향력 제고 기회 모색

러시아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표명해온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과 '로드맵'에 따라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내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관여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개입 여지가 적은 초기 논의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다자 안보체제 형성' 논의의
준비·착수 시점에 본격적으로 관여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 러시아의 우선적 관심 사항은
△ 다자 안보체제 논의 참여를 통한 동북아·한반도 이해당사자로서
입지 강화, △ 남북러 3각 협력의 본격 추진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고와 신동방정책 추진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 동력 확보임

3) 군사·안보 정책: 국내 정책의 안정적 추진 뒷받침에 주력

푸틴 4기 러시아는 안정적 경제 성장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한 경제·사회 정책의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확고한 군사·안보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

푸틴은 △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사르마트', △ 심해 장거리 무인조종어뢰, △ 정밀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 '킨잘', △ 전략적 순항 미사일 '아방가르드' 등을 직접 시연하면서 러시아가 미국/서방의 MD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

경제·사회 정책의 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래 간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 군사·안보 태세 준비가 관건



III. 정책적 시사점

1. 푸틴 4기의 출범은 우리에게 '위기' 아닌 '기회'
2. 푸틴 4기 정책노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협력 의제 발굴
3.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 고무·추동
4. 6월 한러 정상회담과 9월 동방경제포럼의 효과적 활용
5. 극동개발부 장관 교체에 대한 대응
6. 푸틴 4기 인적 쇄신과 후계 논의 대응



감사합니다!

